

#문법적_사고



[Final_
꿀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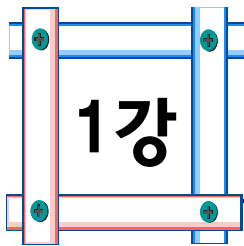
시험장에서도 흔들려지 않는 바르고 큰 실력



송운정 先生

E-mail: danke1204@naver.com
<http://cafe.naver.com/songsongedu>

☎ 010-3743-1204



1강

중세국어

개념 01 중세국어의 음운

개념 02 중세국어의 조사

개념 03 중세국어의 문법요소

– 기출로 확인하기

개념

01

중세국어의 음운

01 자음, 모음

● 중세 국어의 ‘초성’

훈민정음에서는 조음 위치가 ‘아(牙), 설(舌), 순(脣), 치(齒), 후(喉)’의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어금닛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
전청	ㄱ	ㄷ	ㅂ	ㄴ	ㄸ	ㅇ
차청	ㅋ	ㅌ	ㅍ		ㅊ	ㆁ
전탁	ㄱ(ㄲ)	ㄷ(ㄸ)	ㅂ(ㅃ)	ㄴ	ㄸ	ㆁ
불청불탁			ㅃ	ㄸ		ㅇ
불청불탁	ㅇ	ㄴ	ㅁ			
불청불탁		ㄹ				

다음과 같이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와 중세 국어의 자음 체계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입술소리	혓소리	잇소리	잇소리	어금닛소리	목구멍소리
파열음	평음	전청	ㅂ	ㄷ			ㄱ	
	경음	전탁	ㅃ(ㅅ)	ㄸ(ㄷ)			ㄱ(ㄲ)	
	격음	차청	ㅍ	ㅌ			ㅋ	
파찰음	평음	전청				ㅈ		
	경음	전탁				ㅊ		
	격음	차청				ㅉ		
마찰음	평음	전청			ㄴ			ㅇ
	경음	전탁			ㄴ			ㆁ
	유성음	불청불탁	ㅃ		ㄸ			ㅇ
비음	불청불탁		ㅁ	ㄴ			ㅇ	
유음	불청불탁			ㄹ				

*용어 풀이

- ① 전청: ‘ㄱ’, ‘ㄷ’, ‘ㅂ’, ‘ㄴ’, ‘ㄸ’, ‘ㅇ’ 등에 공통되는 음성적 특질을 말한다.
- ② 차청: ‘ㅋ’, ‘ㅌ’, ‘ㅍ’, ‘ㅊ’, ‘ㆁ’ 등에 공통되는 음성적 특질을 말한다.
- ③ 불청불탁: ‘ㅇ’, ‘ㄴ’, ‘ㅁ’, ‘ㅇ’, ‘ㄹ’, ‘ㄸ’ 등에 공통되는 음성적 특질을 말한다.
- ④ 전탁: ‘ㄲ’, ‘ㄸ’, ‘ㅃ’, ‘ㄴ’, ‘ㅊ’, ‘ㆁ’ 등에 공통되는 음성적 특질을 말한다.

● 중세 국어의 ‘중성’

·단모음: ㅏ, ㅑ, ㅣ, ㅓ, ㅕ, ㅗ, ㅛ, ㅜ (7모음 체계)

·이중 모음: ㅟ, ㅢ,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이름	특징	보기
초출자	‘ㅏ’가 하나만 쓰임	ㅏ, ㅑ, ㅓ, ㅕ
재출자	‘ㅏ’가 둘이 쓰임	ㅟ, ㅢ, ㅥ, ㅦ

● 받침 자음

중세 국어에서는 받침에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만이 온다. (8종성법)

※ 현대 국어와는 달리 ‘ㄷ’과 ‘ㅅ’이 구분된다.

O2 음운의 변화

문자	명칭	변천 양상	용례
ㅁ	순경음 비읍	후기 중세 국어의 초기부터 음운의 기능을 잃고 반모음 ‘ㅓ/ㅕ’로 바뀜	고ㅁ>고와, 더ㅁ>더워, 구ㅁ>구워
ㅴ	반치음	중세 국어에는 있었으나 점 차 ‘ㅅ’으로 바뀌거나 탈락함	한ㅴ>한숨, 마ㅴ>마음, 지ㅴ>지어
ㅵ	옛이음	중세 국어에서는 ‘ㅇ’과 ‘ㅵ’ 이 있었는데, ‘ㅵ’은 [ŋ]의 음가를 지니며 받침에 쓰임. 시간이 지나면서 ‘ㅇ’이 ‘ㅵ’ 의 역할까지 대체함	바ㅵ>방울>방울>방울 중ㅵ>중생>중생(짐승)
ㅶ	여린 히을	‘ㅎ’을 여리게 내는 소리로 ‘ㅁ, ㅴ, ㅵ, ㅶ’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짐	흙 배(할 바가)

03 표기 방법

● 글자 운영 방식

① 이어 쓰기(연서)

-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봉, 몽, 풍, 병
- 한자음의 표기를 제외한 국어의 표기에서는 ‘병’만 사용되었다.

② 나란히 쓰기(병서)

- 각자병서: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 ㄱ, ㄷ, ㅂ, ㅅ, ㅈ, ㅊ
- 합용병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

유형	특징	예시
‘ㅅ’계	ㅅㄱ, ㅅㄷ, ㅅㅂ	쌈, 쏘, 썩리다
‘ㅂ’계	ㅂㄷ, ㅂㅅ, ㅂㅈ, ㅂㅊ	쁘다, 벌, 짝, 뵈다
‘ㅂㅅ’계	ㅂㅅㄱ, ㅂㅅㄷ	뽕, 뽕

③ 붙여 쓰기(부서)

- 초성을 기준으로 중성의 위치를 규정한 것
- 초성 아래 쓰는 중성: ㅏ, ㅑ, ㅓ, ㅕ, ㅗ, ㅛ (ㅈ + ㅓ → 조)
- 초성 오른쪽에 쓰는 중성: ㅓ, ㅕ, ㅗ, ㅛ, ㅜ (ㅈ + ㅓ → 자)

④ 음절 이루기(성음)

- 모든 글자는 어우러져야 음절을 이룬다.
- ㄱ, ㄷ, ㅌ → 강 ㅇ, ㅈ, ㅊ → 음

⑤ 방점 찍기(가점)

- ‘성조’ 표시를 말한다.
- 평성: 점 없음, 뭇노가본 소리(가장 낮은 소리), 활
- 거성: 한 점, 뭇노폰 소리(가장 높은 소리), 새
- 상성: 두 점, 처서미 뭇갑고 냉중이 노폰 소리(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 : 새
- 입성: 점은 같지만 축급함. 중성이 ‘ㄱ, ㄷ, ㅂ, ㅅ’으로 끝나는 소리는 모두 입성

● 사잇소리의 표기

- 역할: 명사와 명사가 연결될 때 사이에 들어가서 관형격 조사와 같은 구실을 했다.
- 사잇소리가 표기에 반영되는 위치
 - 앞말의 받침: 가온뒸소리, 바룻우회
 - 뒷말의 초성에 병서로: 엄쏘리(어금니 소리), 혀쏘리(혀소리)
 - 한자어 다음에 별도로 표기: 兄형ㄱ뽕(형의 뜻)
- “훈민정음”, “용비어천가”에서 나타난 사잇소리의 표기

	선행음	사잇소리	후행음	예시
한자어 다음	ㅇ	ㄱ	안울림소리	
	ㄴ	ㄷ		
	ㅁ	ㅂ		
	ㅎ	ㅅ		
	ㅇ	ㅇ		
	울림소리	△	울림소리	

O4 적기방식

- 중세 국어의 표기법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음소(소리 단위)를 밝혀서 적는 표기법이다. 현재는 한글 맞춤법에서는 [꼬치], [꼬출]로 소리 나는 말을 ‘꽃이, 꽃을’로 적지만 중세 국어라면 소리 그대로 ‘꼬치, 꼬출’을 적었을 것이다.

(1) **중세-이어적기** : 앞말의 종성을 뒷말의 초성이 내려 적는 것 (표음주의)

예) 사롬 + 이 → 사꺠미

(2) **근대-거듭적기** : 앞말의 종성을 적고 뒷말의 초성에도 내려적는 것

예) 사롬 + 이 → 사롬미

(3) **현대-끊어적기** : 앞말의 종성을 적고 뒷말의 초성에는 ㅇ을 적는 것 (표의주의)

예) 사람 + 이 → 사람이

개념

02

중세국어의 조사

- 중세 국어의 조사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크게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눌 수 있다.

·격조사: 주격조사, 관형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

·보조사: 크게 주제를 표시하는 것과 의문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외의 기능을 나타내는 보조사들도 존재한다.

조사	격조사	주격 조사
		관형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
		서술격 조사
	보조사	주제 표시
		의문 표시

이 격조사

● 주격 조사

현대 국어의 ‘이, 가’에 해당한다.

표기	예시
이	☞ 체언 말음이 자음일 때. ex) 식미 기픈 므른 (← 심 + 이: 샘이 깊은 물은)
ㅣ	☞ 체언 말음이 ‘이, ㅣ’가 아닌 모음일 때,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한자로 표시될 때. ex)·各司 全次 (← 全次+ㅣ) 잇느니 (각각 까닭이 있느니) cf. 이런 전초로 (이런 까닭으로) ·變化ㅣ 無窮홀썩 (변화가 무궁하시므로)
∅	☞ 체언 말음이 ‘이, ㅣ’일 때. ex) 엄니 히오 (← 엄니 + ∅: 어금니가 희고)

● 목적격 조사

현대 국어의 ‘을, 를’에 해당한다.

표기	예시
울/을	☞ 선행 체언이 말음이 자음일 때 ex)·내 이 썩를 나하 길오니 (← 썩 + 울: 내 이 딸을 낳아 기르니) ·나라를 맛드시릴썩 (← 나랄 + 을: 나라를 맡으실 것이므로)
롤/를	☞ 말음이 모음인 일부 체언 뒤에서 ex)·겨지비 양조를 빙그르시고 (여자의 모습을 만드시고) ·부터를 供養호수바 (부처님을 공양하여)
ㄹ	☞ 선행 체언의 말음이 모음일 때 수의적으로 사용 ex)·소릴 내야 (소리를 내어) ·님금 位ㄹ 버리샤 (임금의 자리를 버리시어)

● 관형격 조사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한다.

표기	예시
의/의	☞ 선행 체언이 유정명사일 때 ex)·사름의 뽀들 (← 사름 + 의: 사람의 뜻을) ·麒麟의 샛기로다 (기린의 새끼로구나)
ㅅ	☞ 선행 체언이 무정명사일 때 ☞ 선행 체언이 극존칭의 유정명사일 때 ex)[무정명사] ·根源ㅅ 智慧와 (근원의 지혜와) ·二月ㅅ 보름 나래 (이월 보름날에) [극존칭 유정명사] ·부텃 나히 설흔네히러시니 (← 부텃 + ㅅ: 부처님의 나이 서른넷이시더니) ·太子ㅅ 머리에 (← 太子 + ㅅ: 태자의 머리에)
ㅣ	☞ 체언 말음이 모음인 일부 체언 뒤에 ex)·쇠머리 (← 쇼 + ㅣ: 소 머리) ·臣下ㅣ 말 (← 臣下 + ㅣ: 신하의 말)

● 부사격 조사

① 현대 국어의 '에, 에서'에 해당한다.

표기	예시
애/에	☞ 선행 체언이 말음이 양성이면 '애', 음성이면 '에' ex)·바르래 가느니 (← 바를 + 애: 바다에 가느니) ·兜率天에 겨샤 (← 兜率天 + 에: 도솔천에 계시어)
예	☞ 선행 체언의 말음이 '이, ㅣ'일 때 ex)·狄人(적인) 서리에 가샤 (오랑캐들 사이에 가시어) ·저근 빈예 올오리라 (작은 배에 오르리라)
의/의	☞ 신체, 방위, 지리, 시간, 거주, 숫자 등 특정 체언에만 연결, 관형격(속격) 조사와 형태가 같으므로 무정 체언과 연결되면 '처격 조사', 유정 체언과 연결되면 '관형격(속격) 조사'로 구분 ex)·바미 비취니 (← 밤 + 의: 밤에 비치니) ·겨트 셔셔 (← 곁 + 의: 곁에 서서) * 처격 조사: 城의 나아 (← 무정 체언: 성에 나아가) 속격 조사: 百姓의 막스물 (← 유정 체언: 백성의 마음을)

② 현대 국어의 ‘에게, 한테, 더러’에 해당한다.

표기	예시
관형격 조사 + 그에/게/과, 거기, 손디	ex)·내 허마 衆生(중생)이 그에 즐거븐 거슬 布施(포시)호디 (← 인 + 그에: 내 이미 중생에게 즐거운 것을 보시했는데) ·부더와 증꿏그에 布施(포시)허야 (← 스 + 그에: 부처님과 스님께 보시하여) ·世尊(세존)의 허수보디 (← 스 + 과: 세존께 청하되) ·如來스거과 이러툇 혼 이를 能히 묻느니 (← 스 + 거과: 여래께 이러한 일을 능히 물으니)
ㅣ	ex)·그 막숯 사롬드려 무로디 (그 마을 사람에게 묻기를)

③ 현대 국어의 ‘으로/로’에 해당한다.

표기	예시
으로 으로 로	ex)·갈허로 바히논듯 알팍거시놀 (← 갈 + 으로: 칼로 베이는 듯 아프시거늘) ·一心으로 드러 날그며 외와 (한마음으로 듣고 읽으며 외워) ·天命을 모릅실썩 꾸으로 알외시니 (천명을 모르시므로 꿈으로 알리시니) ·물로 뇷 씻겨샤 (물로 얼굴을 씻겨야)

④ 현대 국어의 ‘와/과’에 해당한다.

표기	예시
와/과	ex)·눈과 귀와 고과 혀와 몸과 뜰과를 六根이라 허느니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을 육근이라 하느니) ·입시울와 혀와 엄과 이와 다 도허며 (입술과 혀와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 * ‘뜰과를, 니왜(← 니와 + ㅣ)’처럼 마지막 체언에 ‘와/과+조사’ 연결 ·하늘콧 짜콧 슄시에 (하늘과 땅과의 사이에) ·옷과 뵈와로 (옷과 베로)

● 호격 조사

현대 국어의 ‘아/야’에 해당한다.

표기	예시
하	☞ 상위자에게 사용 ex)·大王하 엇더 나를 모릅시느니잇고 (대왕이시여, 어찌 저를 모르십니까?)
이여/여	☞ 상위자는 아니지만 대우하여 부를 때 사용 ex)·어딜썩 觀世音이여 (어질구나! 관세음이여!) ·究羅帝여 네 命終한다 (구라제여! 너는 생명이 끊어졌느냐?) ·도홀썩 도홀썩 오닐낫 果報ㅣ여 (줄구나, 줄구나 오늘날의 과보여!)
아/야	☞ 하위자나 동등한 경우에 사용 ex)·比丘아 알라 (비구야! 알아라) ·長者야 내 이제 (장자야! 내가 이제)

● 서술격 조사

활용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중세 국어의 용언의 활용은 현대 국어와는 다른 점이 많다. 특히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은 무척 독특하다. ‘아니’ 역시 현대 국어의 ‘아니다’와는 달리 명사와 용언의 속성을 모두 보이고 있다.

(1) ‘이다’의 활용

① 체언의 말음이 자음일 때 ‘이다’의 어간은 ‘이-’이다.

·國은 나라히라 (← 나랏 + 이- + -다: 국은 나라이다.)

·國王ᄒᆞᆫ 딸리러라 (← 딸 + 이- + -더- + -다: 국왕의 딸이더라)

·民은 百姓이오 (← 百姓 + 이- + -고: 민은 백성이고)

② 체언 말음이 ‘이, ㅣ’가 아닌 모음일 때 ‘이다’의 어간은 ‘ㅣ’가 된다.

·일후미 부테라 (← 부터 + ㅣ- + -다: 이름이 부처이다.)

·므스글 道ㅣ라 ㅎ느니잇고 (← 道 + ㅣ- + -다: 무엇을 도라고 합니까?)

③ 체언 말음이 ‘이, ㅣ’일 때에는 어간이 실현되지 않는다. (∅)

·흙은 소리니 (← 소리 + ∅- + -니: 흙은 소리이니)

·푸메 ㅅ득흔 죠히러라 (← 죠히 + ∅ + -더- + -다: 푸메 가득한 종이더라)

·水精瑠璃塔을 세니 노퍽 八萬 四千里러라

(← 四千里 + ∅ + -더- + -다: 수정 유리 탑을 세우니 높이가 팔만 사천 리더라)

(2) ‘이다’ 활용의 특징

① 후행 어미의 첫소리 ‘ㄷ’을 ‘ㄹ’로 바꾼다.

·食은 바비라 (← 밥 + 이- + -다: 식은 밥이다)

·부텃 나히 마순다스시러니 (← 마순다춧 + 이- + -더- + -니: 부처의 나이 마흔다섯이시더니)

·나는 중싱의 ㅅ슴미로다 (← ㅅ슴 + 이- + -도- + -다: 나는 짐승의 마음이구나)

② 후행 어미의 첫소리 ‘ㄱ’을 탈락시킨다.

·本은 미티오 枝는 가시오 末은 그티라 (← 밑 + 이- + -고, 가지 + 이- + -고: 본은 근본이고 지는 가지이고 말을 끝이다)

·나히 一百설흐니어니 (← 일백설흔 + 이- + -거니: 나이 130이더니)

·慈悲는 衆生을 케 ㅎ시는 거시어늘 (← 것 + 이- + -거늘: 자비는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거늘)

③ 후행 어미의 첫소리 ‘오/우’를 ‘로’로 바꾼다.

·나 釋迦ㅣ로라 (← 釋迦 + ㅣ- + -오- + -다: 내가 석가이다)

·入聲은 點 더우든 ㅎ가지로되 ㅅ꺾니라 (← ㅎ가지 + 이- + -오되: 입성은 점을 더하는 것은 한가지이되 빠르다)

O2 보조사

● 주제 표시 보조사

현대 국어의 '은/는'에 해당한다.

표기	예시
ㄴ, 은/는, 온/느	ex)·우린 드로니 (← 우리 + ㄴ: 우리는 들으니) ·命終은 목숨 마칠씨라 (명종은 목숨을 마치는 것이다.) ·右는 올 훈 녀기라 (우는 오른쪽이다) ·버의 둥어리 곁흔 믅흔 다 님금 톡시느 거시니 (← 물 + 온: 호랑이의 등 같은 말은 모두 임금이 타시는 것이니) ·나는 알팍로 나사가 摩尼寶珠를 어두리라 (나는 앞으로 나아가 마니보주를 얻으리라)
란	☞ 목적어에 해당하는 체언에만 연결 ex)·한 아기란 업고 새 나흔니란 치마에 다마 (한 아기를 업고 간난아기를 치마에 담아) ·또 뽕으란 통하고 뽕으란 마가사 (또 선을 통하게 하고 악을 막아야)

● 의문 표시 보조사

표기	예시
고/오	☞ 의문사가 있을 경우 ex)·이 엇던 사룽고 (이 어떤 사람이냐?) ·그디 子息 업더니 믅숫 罪오 (그대가 자식이 없더니 무슨 죄인가?)
가/아	☞ 의문사가 없을 경우 ex)·이 썩리 너희 종가 (이 딸이 너희의 종이냐?) ·이논 賞가 罰아 (이것은 상인가, 벌인가?)

● 그 외의 보조사들

표기	예시
썬	☞ 현대 국어의 ‘썬’과는 달리 ‘만’의 의미로도 쓰임. ex)·하늘 우과 하늘 아래 나썬 尊호라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만이 존귀하다) ·護彌 날오디 소리썬 듣노라 (호미가 말하되 “소리만 듣는다”)
두고, 라와	☞ 비교를 나타냄. ex)·늑치 端正하샤미 이두고 더으시며 (얼굴이 단정하심이 이보다 더하시며) ·버들개야지 소오미라와 희요물 7장 의노라 (← 소음 + 이라와: 버들개지가 솜보다 흰 것을 가장 미워한다.)
브터, 썻장	☞ 현대 국어의 ‘부터’와 ‘까지’를 의미 ex)·第二 卷 처음브터 發明하샤 이에 니르러 (제2권 처음부터 발명하시어 여기에 이르러) ·數 三十썻장이오 (수가 13까지이고) ·舍利供養브터서 잇7자온 人天行을 니르시니라 (사리공양부터 여기까지는 인행천을 이르는 것이다.) ·일로 브터 子孫이 니스시니 (이것으로부터 자손이 이어지시니) * ‘브터’는 동사 ‘붙다’의 활용형으로 ‘올브터, 로브터’로 많이 쓰인다.
샤, 곳, 봣, 꿈	☞ ‘강조’를 나타냄. ex)·오직 부테샤 能히 다 아긔시느니라 (오직 부쳐여야 능히 다 아신다.) ·썸곳 아니 나가든 (땀이 안 나가든) ·썸곳 나가든 孝養이라 하쇼셔 (말이 나가든 이름을 효양이라 하십시오) ·오늘 여히스븐 後에 썸곳 아니면 서르 보스불 길히 업건마른 (오늘 이별한 후에 꿈이 아니면 서로 볼 길이 없건마는) ·四方애 날굽 거름곰 거르시니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니) ·目連이 種種 方便으로 가시곰 솔바도 (목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아뢰도)
이나, 이어나, 이며, 이여	ex)·比丘 나 比丘尼나 優婆塞나 優婆夷나 보니마다 다 절하고 (비구나 비구니나 우바새나 우바이나 본 사람마다 다 절하고) ·鐵이어나 남기어나 흘기어나 (철이거나 나무거나 흙이거나) ·나라히며 자시며 子息이며 (나라며, 성이며, 자식이며) ·皇帝며 皇后며 妃子 며 太子 며 王子 며 (황제며 황후며 비자며 태자며 왕자며) ·父母 나지여 바미여 우르샤 (부모가 밤낮으로 우시여) ·내 이제 나저 바며 시름하노니 (← 낮 + 이여 밤 + 이여: 내가 이제 밤낮 시름하니)

개념

03

중세국어의 문법요소

이 선어말 어미에 의한 문법 요소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높임이나 시제 등 여러 가지 문법 범주를 표시한다. 하지만 현대 국어와 비교해 볼 때 높임 표현, 시간 표현, 1인칭 표시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처럼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선어말 어미의 기증을 알아 두자.

선어말 어미	존대 표현 선어말 어미
	시간 표현 선어말 어미
	인칭 표시 선어말 어미
	감동 표현 선어말 어미

● 높임 표현 선어말 어미

① 주체 높임 표현 선어말 어미: 주어로 실현되는 주체를 높인다.

선어말 어미	예시
-시-	☞ 후속하는 어미가 자음 어미, 매개 어미일 때 ex)·부테 本來 장차 니르시리어늘 (← 니르- + -시- + -리- + -어늘: 말씀하실 것이어늘, 주어 '부처'를 존대) ·올흐시이다 世尊하 (← 올- + -으시- + -이다: 올습니다. 주어 '세존'을 존대) ·國王이 부텃 들즈복시고(← 들- + -줄- + -으시- + -고 : 들으시고, 주어 '국왕'을 존대)
-샤-	☞ 후속하는 어미가 모음 어미 '-아, -오'일 때 ex)·海東六龍이 느르샤 (← 놀- + -으샤- + -아: 나시시어, 어미 '-아' 앞에서 실현) ·太子 니르샤되 도홀썌 (← 니르- + -샤- + -오되: 말씀하시되, 연결 어미 '-오되' 앞에서 실현) ·부테 敎化흐샤미 (← 敎化- + -샤- + -음: 교화하심이, 명사형 어미 '-음' 앞에서 실현)

② 객체 높임 표현 선어말 어미: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객체, 즉 주로 목적어나 부사어로 실현되는 대상을 높인다.

선어말 어미	예시
-습- -습- -줍-	☞ 객체(부사어, 목적어)로 실현되는 대상을 높임. 현대 국어에서는 '드리다, 여쭙다' 등으로 어휘적으로 실현 ☞ 음운 환경에 따라 '-습-, -줍-, -습-'으로 실현 ex)·世尊의 버릇 업습던 일을 魔王이 뉘으츠니이다 (← 업- + -습- + -던) ⇨ 주어진 '마왕'보다 부사어로 실현된 '世尊의'가 더 상위...객체 높임 실현 ·내 쯔 말씀 듣줍고사 (← 듣- + -줍- + -고사) ⇨ 주어진 '나'보다 목적어로 실현된 '王 말씀'이 더 상위...객체 높임 실현 ·그썌 王이 부터를 請흐스바 (← 請- + -습- + -아) ⇨ 주어진 '왕'보다 목적어로 실현된 '부터를'이 더 상위...객체 높임 실현 ·이제 如來의 微妙한 法音을 듣조오니 (← 듣- + -줍- + -으니: '-줍-'이 '-조오-'로 실현) ⇨ 주어보다 객체인 '여래의 법음'이 더 상위... 객체 높임 실현 * 참고 ☞ 현대 국어에서는 '-습-'과 같이 선어말 어미에 의한 객체 높임 표현은 사라지고 '드리다, 여쭙다, 모시다' 등의 일부 어휘를 이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한다. ·철수야 네가 선생님을 모시고 와라 (객체가 '선생님'이므로 높임의 '모시고' 실현) ·철수야 네가 기영이를 데리고 와라. (객체가 '기영이'이므로 평칭의 '데리고' 실현)

③ 상대 높임 표현 선어말 어미: 청자를 높인다.

선어말 어미	예시
-이-, -잇-	☞ 청자를 존대할 때 쓰이며 종결 어미 앞에서만 실현 ① -이-: 종결 어미 '-다' 앞에서 실현. 현대 국어의 '-습니다'에 해당함. ·世尊하 내 이제 觀世音菩薩을 供養호리이다 (← 흥- + -오- + -리- + -이다) ⇒ 주어인 '내'가 청자인 '세존'을 존대 ·내 王 말쌈 듣좁고사 내 ㅁ슴미 썩돈과이다 (← 썩돈- + -거- + -오- + -이다) ⇒ 주어인 '내'가 청자인 '왕'을 존대 ② -잇-: '-잇가, -잇고'로 실현. 현대 국어의 '-습니까'에 해당함. [의문 대명사가 없을 때: -잇가] ·王이 무로되 尊者스 우희 쏘 다론 上座ㅣ 잇느니잇가 (← 잇- + -느- + -니잇가: 있습니까?) ⇒ 주어인 '왕'이 청자를 존대 ·世尊하 손직 네 ㄱ티 世間에 거시더니잇가 (거시- + -더- + -니잇가: 계셨습니까?) ⇒ 주어가 청자인 '세존'을 존대 [의문 대명사가 있을 때: -잇고] ·大王하 엇더 나를 모릅시느니잇고 (모릅- + -시- + -느- + -니잇고: 모르십니까?) ⇒ 주어인 '내'가 청자인 '대왕'을 존대 ·世尊하 디나건 뉘엿 이리 엇더하니잇고 (엇더하- + -니잇고: 어떠합니까?) ⇒ 주어가 청자인 '세존'을 존대

● 시간 표현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예시
-느-, -ㄴ/논	☞ 동사에 연결되어 '현재'를 표시. 현대 국어의 '-느-, -ㄴ/는'에 해당 ex)·네 이제 쏘 묻는다 (← 묻- + -느- + -다: 네가 지금 또 묻는다) ·太子ㅣ 이제 어딴 잇느뇨 (← 잇- + -느- + -니오: '태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로되 그딴 아바니미 잇느닛가 對答호되 잇느니이다 (← 잇- + -느- + -닛가/잇- + -느- + -니잇가) ·山애 이 고지 만히 이셔 줍내 머리 나느니 (← 나- + -느- + -니: 나니) [-논- (← -느- + -온)] ⇒ '-느-'가 있는 '-논'은 '현재', 없는 '-온'은 '과거'로 해석 ·일로브터 無畏力을 得하논 전초로 (← 흥- + -느- + -온: 得하는, '현재'로 해석) ·내 得흔 微妙法을 부테스 아릅시리라 (← 흥- + -온: 得한, '과거'로 해석) ⇒ '-느-'가 있으면 '현재', 없으면 '과거'로 해석 ·德又迦논 毒을 내느다 흥논 마리오 (← 흥- + -느- + -온: '독을 낸다'고 하는 말이오) ·曼殊沙논 불근 고지라 혼 마리라 (← 흥- + -온: '붉은 꽃이라'고 한 말이다)

● 인칭 표시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예시
-오-	☞ 종결형과 연결형에서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냄. ex)·내 허마 命終호라 (← ㅎ- + -오- + -다: ‘내 이미 목숨이 命終했다.’) 내 이제 너드려 묻노라 (← 묻- + -ㄴ- + -오- + -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묻는다.’) ⇒ 주어가 ‘나’로 1인칭, 현재일 때는 ‘-노라(← -ㄴ- + -오- + -다)’로 실현. ·弟子는 이 理리를 아디 묻호니 (← 묻ㅎ- + -오- + -니) ⇒ ‘제자’는 1인칭에 해당하므로 ‘-오-’ 실현 ·누른 새는 저기 ㄴ로물 任意로 ㅎ노라 (← ㅎ- + -ㄴ- + -오- + -다) ⇒ ‘누른 새’는 문맥상 화자(1인칭)를 나타내므로 ‘-오-’ 실현
	☞ 관형사형에서 나타냄. (생략된 문장성분이 목적어, 부사어일 때) ex)·내 득흔 미묘법을 부테수 아ㄴ시리라 (← ㅎ- + -온) ⇒ ‘미묘법을 득하다’의 속 구조일 때 ‘-오-’ 실현 ·덕차가는 독을 내ㄴ다 ㅎ논 마리오 (← ㅎ- + -ㄴ- + -온: ‘독을 낸다’고 하는 말이오) ⇒ ‘말을 하다’의 속 구조일 때 ‘-오-’ 실현
	* 다른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ㄴ- + -오- → -노-] ·내 이제 大衆과 여희노라 (← ㅎ의- + -ㄴ- + -오- + -다) [-더- + -오- → -다-] ·내 룡담ㅎ다라 (← 룡담ㅎ- + -더- + -오- + -다) [-거- + -오- → -과/가-] ·내 오늘 큰 利를 얻과라 (← 얻- + -거- + -오- + -다) ·나그내 시르메 엇데 이룰 듣가니오 (← 듣- + -거- + -오- + -니오) [‘이다’ 다음에서: -오- → -로-] ·나는 龍王스 안門 자본 조이로라 (← 종 + 이- + -오- + -다: ‘중이다’) ·만흔 ㅁ슴과 내로라 ㅎ는 ㅁ슴과 (← 나 + 이- + -오- + -다: 교만한 마음과 나라고 하는 마음과) ⇒ ‘-오-’ 다음에 오는 ‘-다’는 ‘-라’로 변화함. 현대 국어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에 이러한 사실이 남아 있음.

● 감동 표시 선어말 어미

① -돏-, -도-, -웃-, -스-: 화자의 감동, 영탄 등의 감정을 표시한다.

·書生은 허마 銘을 사기돏다 (← 사기- + -돏- + -다: ‘새기었구나!’)

·太子 | 니르샤디 ㄷ홀썌 이사 ㅁ스매 흰히 즐겁도다 (← 즐겁- + -도- + -다: ‘즐겁구나’)

·患難 하매 便安히 사디 묻호소라 (← 묻ㅎ- + -스- + -오- + -다: ‘못하는구나’)

② ‘-웃-’은 ‘-돏-(← -ㄴ- + -웃-), -꽈-(← -거- + -웃-)’으로 실현

·씨리 날오되 그디 恩惠를 모ㄴ돏다 (← 모ㄴ- + -ㄴ- + -웃- + -다: ‘모르는구나’)

O2 종결어미에 의한 문법요소

● 의문문

종결 어미	예시
주어가 1, 3인칭일 때 -가 / -고	☞ -가: 청자에게 질문에 대한 가부의 의견만을 물을 때 쓰임. (판정 의문문) ·왕이 무로되 尊者스 우희 쏘 다론 上座ㅣ 잇느니잇가 (← 잇- + -느- + -니잇가: 있습니까?) ☞ -고: 의문사가 쓰여서 청자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 쓰임. (설명 의문문) ·大王하 엇더 나롤 모르시느니잇고 (모르- + -시- + -느- + -니잇고: 모르십니까?) ·스승뵈 어마니미 이에 잇다 허야 뉘 니르더니잇고 (니르- + -더- + -니잇고)
주어가 2인칭일 때 -나다	☞ -나다: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의문형 어미를 구분하지 않음. 네 엇데 <u>안다</u>?<월인석보> [현대어]네가 어찌 알았느냐?

● 상대높임법

종결어미	예시
하라체	☞ 가장 낮은 등급. 현대 국어의 반말체 ·명령: 네 이제 반득기 알라 (← 알- + -라) ·의문: 功德이 하녀 저그녀 (대시주의 공적이 많은가, 적은가?) - 罪를 能히 니르려 몬 니르려(죄를 능히 말하겠는가? 말하지 마하겠는가?) - 네 어썸 사르민다 (네 어떤 사람이냐?) ·평서: 善友ㅣ 날오되 나눈 난 後로 거짓말흔 적 업다(← 업- + -다) ·청유: 五欲을 막슌그장 편 後에사 出家하저 (← 出家하- + -저) ·감탄: 豆餵썌 이사 막스매 흰히 즐겁도다 (← 즐겁- + -도- + -다)
하야씨체	☞ 중간 등급 ·大臣을 請하야 이바도려 하노닛가 護彌 날오되 그리 아닝다 ⇒ ‘하노닛가’는 ‘하노니잇가’보다 아래 등급 표시 ‘아닝다’는 ‘아니이다’보다 아래 등급 표시
하쇼셔체	☞ 가장 높은 등급. 현대 국어의 ‘하십시오체’ ·명령: - 세존하 피아 니르쇼셔 (← 니르- + -쇼셔) - 여릅 王의 날오되 우리들토 사리를 더러 주쇼셔 (← 주- + -쇼셔) ·의문: 부인이 쏘 무로되 이어고 갓가비 사르믹 지비 잇느니잇가 (← 잇- + -느- + -니잇가) ·평서: 신하ㅣ 대답하스보되 이는 병흔 사르미니이다 (← 사름 + 이- + -니이다) ·청유: 그제 정거천이 허공애 와 太子의 솔보되 가사이다 (← 가- + -사이다) ·감탄: 내 모딘 막스올 내야 보제를 몬 일우리로소이다 (← 일우- + -리- + -dot- + -오- + -이다)



기출로 확인하기

평가요소 분석하기

14예비B형

16.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의미 변화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랏 ㉠말씀미 中囡國語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몓 디 아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穢姓성이 나르고져 홀 배 이셔도 므츨내 제 브들 시러 퍼디 물홀 ㉢노미 ㉣하나라 내 이룰 爲彔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종를 밍 7노니 사롬마다 히예 수비 너겨 날로 뿌메 便便安한크 호 고져 홀 썩르미니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히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의 '말씀'은 '말'을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기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뜻하니까 의미 확대의 예야.
- ② ㉡의 '어리다'는 '어리석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를 뜻하니까 의미 축소의 예야.
- ③ ㉢의 '놈'은 '사람'을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놈'은 남자를 낮잡는 의미로 쓰이니까 의미 확대의 예야.
- ④ ㉣의 '하다'는 '많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란 뜻이니까 의미 축소의 예야.
- ⑤ ㉤의 '어엿다'는 '가엾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예쁘다'는 '모양이 작거나 섬세하여 눈으로 보기에 좋다'란 뜻이니까 의미 이동의 예야.

1406B형

평가요소 분석하기

16. <보기>의 ㉠과 ㉡에 속하는 사례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보 기>

모음 ‘·’는 중세 국어 이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제1 단계 변화에서는 ㉠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가 ‘ㅡ’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 제2 단계 변화에서는 ㉡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가 ‘ㅏ’로 변화하였다. 단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두 단계의 변화를 겪어 ‘·’는 모음 체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

- | | |
|-----------|---------|
| ① 마늘 > 마늘 | 흙 > 흙 |
| ② 사슴 > 사슴 | 꺾장 > 가장 |
| ③ 하나 > 하나 | 오늘 > 오늘 |
| ④ 사름 > 사람 | 드리 > 다리 |
| ⑤ 아들 > 아들 | 다섯 > 다섯 |

1409B형

평가요소 분석하기

16. <보기 1>의 (가), (나)에 따른 표기의 사례를 <보기 2>의 ㉠~㉣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 (가) ○를 입시울쏘리 아래 니셔 쓰면 입시울 가비야본 소리 드외느니라
[풀이] ○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 (나) 첫소리를 어울워 뽕디면 굴바 쓰라
[풀이]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나란히 써라.

<보기 2>

나랏 말쑥미 中동國귀에 달아 文문字중와로 서르 스몓디 아 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홀 배 이셔도 ㉠ ㅁ출내 제 ㅼ들 시러 퍼디 물홀 노미 하나라 내 이룰 爲형 학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중를 ㉡ 땡꺾노니 사롬마다 𑖙 ㉢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便安안히 호고져 홀 ㉣ 썩르미 나라

- 「훈민정음」 언해 -

- | | | | |
|-----|-----|-----|-----|
| (가) | (나) | (가) | (나) |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

14수능B형

평가요소 분석하기

16.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

- ㉠ 자음 ‘ㄷ’과 ‘ㄴ’이 존재하였다.
- ㉡ 초성에 오는 ‘ㅍ’은 ‘ㅍ’과 ‘ㅌ’이, ‘ㅍ’은 ‘ㅍ’과 ‘ㅌ’이 모두 발음되었다.
- ㉢ 종성에서 ‘ㄷ’과 ‘ㅌ’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 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하였다.
- ㉤ 연철 표기(이어적기)를 하였다.

(나) 나랏 :말썽·미 中·國·국·에 달·아 文·문·字·중·와·로 서르
스·못·디 아·니·홀·썩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홀 ·배 이·셔·도 ㅁ·춤·내 제 ·ㅍ·들 시·려
퍼·디 :몬·홀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왕·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 여·들 字·중·를 鳴·그·노·니
:사·름·마·다 :히·ㅍ ·수·비 니·겨 ·날·로 ·ㅍ·메 便·便·安·안
·크 히·고·져 홀 썩·르·미·나·라

- ① ㉠을 보니, ‘수·비’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군.
- ② ㉡을 보니, ‘ㅍ·들’의 ‘ㅍ’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군.
- ③ ㉢을 보니, ‘어·엿·비’에서 둘째 음절의 종성은 ‘ㄷ’으로 발음되었군.
- ④ ㉣을 보니, ‘히·ㅍ’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은 성조가 달랐군.
- ⑤ ㉤을 보니, ‘ㅍ·메’에는 연철 표기가 적용되었군.

1506B형

평가요소 분석하기

16.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과 ㉡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3점]

—<보기 1>—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만 있지만,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익, 의, ㅅ, ㅣ'가 있었다. 이 중 '익, 의, ㅅ'은 결합하는 명사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명사			관형격 조사
의미 특징	끝 음절 모음		
사람이나 동물	양성 모음	+	익
사람이나 동물	음성 모음	+	의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	양성 모음/음성 모음	+	ㅅ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님	양성 모음/음성 모음	+	ㅅ

(예) 늑+익: 늑익 뜰 거스디 아니헛거든 (늑의 뜰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거북+의: 거북의 터리 곶고 (거북의 털과 같고)

大王+ㅅ: 大王ㅅ 말쌔미샤 올커신마튼 (대왕의 말씀이야 올으시지만)

나무+ㅅ: 나무ㅅ 여름 먹느니 (나무의 열매 먹으니)

—<보기 2>—

- 父母ㅣ 아들+㉠ 마롤 드르샤 (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으시어)
○ 다섯 글워+㉡ 글워를 낄굴 다나라 (다섯 수레의 글을 읽어야 할 것이다)

㉠

㉡

- | | | |
|---|---|---|
| ① | 익 | ㅅ |
| ② | ㅅ | 익 |
| ③ | 의 | ㅅ |
| ④ | ㅅ | 의 |
| ⑤ | 익 | 의 |

15O9B형

평가요소 분석하기

16.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 뒤혜는 모던 도죽 알피는 어드본 길헤 업던 번개를 하눌히 불기시니

현대어 역: 뒤에는 모진 도적 앞에는 어두운 길에 없던 번개를 하늘이 밝히시니

중세 국어: 뒤혜는 모던 중상 알피는 기픈 모새 열본 어르물 하눌히 구티시니

현대어 역: 뒤에는 모진 짐승 앞에는 깊은 못에 얹은 얼음을 하늘이 굳히시니

- ① '모던'이 현대 국어의 '모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
- ② '업던'이 현대 국어의 '없던'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어적기를 하였군.
- ③ '하눌히'를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모음 '·'가 쓰였군.
- ④ '모새'가 현대 국어의 '못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 ⑤ '열본'을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자음 'ڠ'이 쓰였군.

15수능B형

평가요소 분석하기

1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자료	[중세 국어] ㉠부텃 마를 ㉡들즈보더 [현대 국어] 부처의 말씀을 듣되
	[중세 국어] ㉢닐굽 ㉣거르를 거르샤 ㉤니르샤더 [현대 국어] 일곱 걸음을 걸으시며 이르시되
학습 활동	[중세 국어] 니르고져 홀 ㉥배 이셔도 [현대 국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 후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가])

- ① ㉠: 관형격 조사로 'ㅅ'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②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③ ㉣: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④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⑤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1606B형

평가요소 분석하기

16.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ㅎ'을 끝소리로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체언을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뒤따르는 조사	'ㅎ' 종성 체언의 실현 양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 예: ㅉ히 (ㅉ+이) 줄어들 (땅이 질거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나타난다. 예: ㅉ토 (ㅉ+도) 뛰더니 (땅도 움직이더니)
관형격 조사 'ㅅ'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 다른 ㅉ (ㅉ+ㅅ) 風俗은 (다른 땅의 풍속은)

<보기 2>

중세 국어	현대 국어
㉠ (나랏+을) 아스 맛디고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 (깊+ㅅ) 네거리예	길의 네거리예
㉢ (안+과) 밧	안과 밧

㉠

㉡

㉢

- | | | | |
|---|-----|---|----|
| ① | 나라홀 | 깊 | 안과 |
| ② | 나라홀 | 깊 | 안과 |
| ③ | 나라홀 | 깊 | 안과 |
| ④ | 나라올 | 깊 | 안과 |
| ⑤ | 나라올 | 깊 | 안과 |

1609B형

16. <자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중세 국어] 五欲은 누네 道훈 빗 보고져 귀에 道훈 소리
듣고져 고해 道훈 내 맡고져 이배 道훈 맛 먹고져 모매
道훈 옷 님고져 흘 씨라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오욕은 눈에 좋은 빛 보고자, 귀에 좋은 소리 듣고자, 코에 좋은 냄새 맡고자, 입에 좋은 맛 먹고자, 몸에 좋은 옷 입고자 하는 것이다.

- ① '五欲은'이 '오욕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보조사 '은'이 있었군.
- ② '누네 豆餼 밋 보고저'가 '눈에 좋은 빛 보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누네 豆餼 밋'은 목적으로 쓰였군.
- ③ '귀에'가 '귀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부사격 조사 '에'가 있었군.
- ④ '豆餼'이 '좋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豆餼'은 용언의 관형사형이었군.
- ⑤ '먹고저'가 '먹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고저'는 종결 어미로 쓰였군.

16수능B형

평가요소 분석하기

16.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王(왕)이 니르사다 大師(대사) ㉠ 𑖀산 일 아니면 𑖃 혼 거시
잇고 ㉡ 仙人(선인)이 술보타 大王(대왕)하 이 ㉢ 南嶺(남굴)스
仙人(선인)이 𑖀 썩를 길어 내니 양지 端正(단정)하야
㉣ 世間(세간)애 ㉤ 𑖀디 몬하니 그 썩 𑖀닐 ㉥ 時節(시절)에
자취마다 ㉦ 蓮花(연화) | 나느니이다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왕이 이르시되 “대사 하신 일 아니면 누가 한 것입니까?”
선인이 아뢰되 “대왕이시여, 이 남굴의 선인이 한 딸을 길러
내니 모습이 단정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못하니
그 딸 움직일 시절에 자취마다 연꽃이 납니다.”

- ① ㉠에서는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 ② ㉡의 ‘이’와 ㉢의 ‘|’는 격 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군.
- ③ ㉢을 보니 ‘스’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④ ㉣과 ㉤을 보니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군.
- ⑤ ㉤과 현대 국어의 ‘쉽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11~12]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1>

- A: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 B: 그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젓다'는 '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 A: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바'처럼 어간이 '돌-'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젓고'처럼 어간이 '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절-'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ㅂ'과 '젓고'의 'ㅅ'은 각각 '빙'이 'ㅂ'으로 교체되고 '△'이 'ㅅ'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바'와 '저서'는 '빙'과 '△'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빙', '△'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도와, '더바'더위'에서와 같이 'ㅂ' 또는 'ㄱ' 앞에서는 반모음 'ɪ/ɥ[w]'로 바뀌었고, '도보시니'도오시니, '서볼'서울'에서와 같이 'ㅇ' 또는 'ㄱ'이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ㅂ' 또는 'ㄷ'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 16세기 중엽에 '아스'아으, '저서'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서울', '도오시니', '아으'는 18~19세기를 거쳐 '서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 A: 자료를 보니 '빙', '△'이 사라지면서 '도바'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 B: 그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밤을) 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 A: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평가요소 분석하기

1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박'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ㅁ'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ㅅ'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ㅅ'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젓고'와 현대 국어의 '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1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평가요소 분석하기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온/-은	-게	-아/-어	-온/-은
①	(마음을) 곱다	곱게	고바	고본	곱게	고와	고온
②	(선을) 긋다	긋게	그서	그슨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눅다	눅게	누버	누본	눅게	누워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본	잡게	자바	자본

1709 모평

평가요소 분석하기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u>하늘</u> 버리 눈 곧 디니이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나) 王이 부터를 <u>請하스</u> 敕쇼서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다) 어머니를 <u>아라보리로소니</u> 잇가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라) <u>내</u> 이룰 위하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내가 이를 위해서)
(마) 그 물 <u>미트</u> 金물애 잇느니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 ① (가): 부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스'이 쓰였다.
- ② (나):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술-'이 쓰였다.
- ③ (다): 판정 의문문의 '-아' 계열 의문형 어미가 쓰였다.
- ④ (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 ⑤ (마):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17수능

평가요소 분석하기

13.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과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밭속물 <u>여러</u>
[현대 국어] 큰 마음을 <u>열어</u>

㉡

[중세 국어] 自然히 밭속미 <u>여러</u>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u>열리어</u>

㉢

[중세 국어] 번개 구르물 <u>흐터</u>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u>흐어</u>

㉣

[중세 국어] 散心은 <u>흐튼</u> 밭속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u>흩어진</u> 마음이다.

탐구 결과: ㉠과 ㉡를 보니, _____ (가)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1806

평가요소 분석하기

15.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적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먼저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가 나타났다.

- 상네 쓰는 햇 일후미라(일후+이라) (보통 쓰는 해의 이름이다)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 牛頭는 쇠 머리라(머리+라) (우두는 소의 머리이다)

그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가 나타났다.

- 生佛은 사라 거신 부테시니라(부터+ㅣ시니라) (생불은 살아 계신 부처이시다)

<보기 2>

- 齒는 ㉠ (치는 이이다)
- 所는 ㉡ (소는 바이다)
- 樓는 ㉢ (누는 다락이다)

	㉠	㉡	㉢
①	니이라	바이라	다락라
②	니라	배라	다락ㅣ라
③	니이라	바라	다락ㅣ라
④	니라	배라	다라기라
⑤	니ㅣ라	바이라	다라기라

정답 및 해설

[14예비B형]

16 ⑤

[1406모평 B형]

16. ②

[1409모평 B형]

16 ⑤

[14수능 B형]

16 ③

[1506모평 B형]

16 ①

[1509모평 B형]

16 ②

[15수능모평 B형]

16. ③

[1606모평 B형]

16 ①

[1609모평 B형]

16 ⑤

[16수능 B형]

16. ②

[1706모평]

11 ② 12 ①

[1709모평]

15 ①

[17수능]

13 ③

[1806모평]

15 ④

14예비B형

1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의미 변화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어의 형태와 의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의미의 이동 등 세 가지 의미 변화 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사례와 연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의미의 확대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의미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며, 축소는 의미의 범위가 축소된 것이며 의미의 이동은 다른 뜻으로 의미가 변화된 경우이다. ‘어엿쁘다’는 ‘가엿다’라는 의미에서 ‘예쁘다’의 의미로 다르게 변화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말 전체를 이르는 ‘말’이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의미가 변화한 것으로, 특정한 경우를 이르는 말로 바뀌었기에 의미 축소에 해당된다. ② ‘어리다’는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의미가 전혀 다르게 변했기에 의미 이동에 해당된다. ③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놈’이 남자를 낮잡는 의미로

축소된 경우이다. ④ ‘많다’를 의미하는 ‘하다’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라는 의미로 변화한 의미 이동의 경우이다.

1406B형

16. 어휘의 변화 유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모음 ‘ㆍ’의 통시적 변화를 특정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②로, ‘사슴’이 ‘사슴’으로 변화한 것은 단어의 둘째 음절에 놓인 ‘ㆍ’가 ‘ㅡ’로 변화한 사례(㉠)이며, ‘가장’이 ‘가장’으로 변화한 것은 첫째 음절에 놓은 모음 ‘ㆍ’가 ‘ㅏ’로 변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마늘’이 ‘마늘’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흙’이 ‘흙’으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하나’가 ‘하나’로 변화한 것은 ㉠이 아닌 ㉡의 사례이며, ‘오늘’이 ‘오늘’로 변화한 것은 ㉡이 아닌 ㉠의 사례이다. ④ ‘사름’이 ‘사람’으로 변화한 것은 둘째 음절의 ‘ㆍ’가 ‘ㅏ’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과 ㉡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리’가 ‘다리’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이다. ⑤ ‘아들’이 ‘아들’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다섯’이 ‘다섯’으로 변화한 것은 둘째 음절의 ‘ㆍ’가 ‘ㅏ’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과 ㉡에 해당하지 않는다.

1409B형

16. 훈민정음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 1>을 통해 순경음과 초성 합용 병서에 대해 설명한 뒤, 그 형태를 <보기 2>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가)는 순경음(脣輕音)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ㅇ’을 연서(連書)하여 표시한 음인 ‘ㄹ’, ‘ㄴ’, ‘ㄷ’, ‘ㅂ’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 ‘수비’의 ‘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초성 글자를 나란히 쓰는 초성 합용 병서(合用並書)에 대한 설명으로, ‘ㄱ’, ‘ㄷ’, ‘ㅂ’, ‘ㅅ’, ‘ㅇ’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썩꺾미니라’의 ‘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 뭉치내와 ㉡ 뽕노니를 통해서 ‘아래아(ㅇ)’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순경음이나 초성 합용 병서와는 관계가 없다.

14수능B형

16. 음운과 표기의 특징

정답해설 : 이 문항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을 제시한 후 사례를 통해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에서는 종성의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해 ③에서는 ‘어엿비’의 ‘ㅅ’이 ‘ㄷ’으로 발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수비’에서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자

음인 ‘뽕’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의 진술에 의하면, ‘쁘 {들’의 ‘ㅂ’은 ‘ㅃ’과 ‘ㅅ’의 두 개의 자음 모두 발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에서 방점을 찍어 성조를 구분하였다고 했는데, ‘히여’의 ‘히’에는 방점 ‘:’가, ‘여’에는 방점 ‘·’가 쓰인 것으로 보아 두 음절의 성조가 서로 달랐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⑤ 연철 표기는 이어 적기를, 분철 표기는 끊어 적기를 의미하는데, ‘뿌메’에서는 이어 적기(연철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1506B형

1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 1>에 제시된 설명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의 특징을 파악하여 <보기 2>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①이다. 먼저, ㉠의 ‘아들’은 높임의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가 양성 모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 ‘이’를 취해야 한다. 이때, ‘·’가 양성 모음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기 1>의 (예) 중에서 첫 번째에 제시한 ‘놈’에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현대어 풀이를 통해 볼 때 ㉡의 ‘술위’는 현대 국어 ‘수레’에 해당하는데, 이는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끝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형격 조사 ‘스’를 취해야 한다. <보기 1>의 (예) 중에서 네 번째에 제시한 ‘나모(나무)’가 ‘스’를 관형격 조사로 취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답 ①

1509B형

1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 중세 국어 ‘업던’과 현대 국어 ‘없던’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소리 나는대로 표기하는 방식인 이어 적기(연철, 連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ㄷ’이 ‘ㅣ’ 모음 앞에서 ‘ㅈ’으로 변하지 않고 ‘모딘’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하늘히’에는 ‘·’가 쓰였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모음이다. 일반적으로 음소로서의 ‘·’는 18세기에 거의 소실된 것으로 파악된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 ‘ㅏ’와 양성 모음 ‘ㅑ’가 어울려 ‘모새’였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 ‘ㅏ’와 음성 모음 ‘ㅑ’가 어울려 ‘뫼에’가 된 것으로 보아 현대 국어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⑤ ‘열븐’에는 ‘뽕(ㅂ순경음)’이 쓰였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음이다. ‘뽕’은 15세기 중반부터 반모음으로 바뀌기 시작하여 현대 국어 ‘고와, 구워’의 사례에서처럼 ‘뽕’이 [w]로 변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한 사례가 일부 확인된다.

15수능B형

1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문법적, 표기적으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 문항을 정확하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중세 국어에 대한 의미적 이해는 물론 선지에 제시된 문법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대 국어의 ‘걸음음’을 중세 국어에서는 ‘거르음’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분철)’이 아니라 ‘소리대로 적은 것(연철)’이다. 즉, 현대국어는 ‘걸음음’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고, 중세 국어는 ‘거르음’로 소리대로 적었다는 차이가 있다. 정답 ③

1606B형

16.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은 ‘나랄’과 ‘울’의 결합인데, ‘ㅎ’ 종성 체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울’이 결합되었으므로 ‘ㅎ’을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어 ‘나라홀’로 써야 한다. ㉡은 ‘깊’과 ‘스’의 결합인데, ‘ㅎ’ 종성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스’가 결합되었으므로 ‘ㅎ’이 나타나지 않아 ‘깊’로 써야 한다. ㉢은 ‘얹’과 ‘과’의 결합이고 ‘과’는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인데, ‘ㅎ’이 뒤따르는 ‘ㄱ’과 어울리면 ‘ㅋ’이 되므로 ‘안과’로 써야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 ㉡의 어형이 잘못 제시되었다. ③ ㉠의 어형이 잘못 제시되었다. ④ ㉠, ㉡, ㉢의 어형이 모두 잘못 제시되었다. ⑤ ㉠의 어형이 잘못 제시되었다.

1609B형

16.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에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문법적으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문항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세 국어에 대한 의미적 이해는 물론 선택지에 제시된 문법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답은 ⑤로, 다섯 가지 욕구[五欲]를 설명하는 각 문장의 마지막에서 반복되는 ‘홀 씨라’가 생략되었음을 감안하면, ‘먹고저’의 ‘-고저’는 종결 어미가 아니라 연결 어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응되는 현대어 풀이가 ‘먹고자 (하는 것이다)’임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이를 파악할 수 있다. 현대어 풀이에서 ‘먹고자 (하다)’의 ‘-고자’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16수능B형

16.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현대 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중세 국어의 문법적, 표기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仙人(선인)이’와 ㉡ ‘蓮花(연화)ㅣ’의 현대어 풀이가 ‘선인이’와 ‘연꽃이’임을 고려할 때, ‘이’와 ‘ㅣ’는 모두 주격 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격 조사의 종류가 달라서’라는 ㉡의 기술은 타당하지 않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체언의 끝소리 종류에 따라 형태가 달리 실현되었는데, ‘선인’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어서 ‘이’가, ‘연화’는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어서 ‘ㅣ’가 결합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체언이 ‘ㅣ’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주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현대어 풀이가 ‘대사 하신 일’임을 고려할 때 ㉠의 ‘후산’에는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 ‘-샤-’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현대어 풀이가 ‘남굴의 선인’임을 고려할 때 ㉡ ‘남굴ㅅ선인’의 ‘ㅅ’이 현대 국어 관형격 조사 ‘의’에 대응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과 ㉡에 쓰인 부사격 조사는 현대 국어로는 모두 ‘에’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세간애’와 ‘시절애’로 달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말의 끝모음 ‘ㅌ’, ‘ㄷ’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모음조화에 따른 결과이다. ⑤ ㉡ ‘쉽디’는 현대 국어에서는 ‘쉽지’로 실현되는데, ‘ㄷ → ㅈ’의 구개음화에 따른 결과이다.

1706

11.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 이 문항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특징을 <대화 1>, <대화 2>와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해 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자료>를 통해 볼 때, 15세기 국어의 ‘도봐’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난 것은 ‘빙’이 ‘ㅌ’ 앞에서 반모음 ‘ㅍ’ [w]로 바뀐 결과이다. 따라서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뀌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대화 1>의 내용에서 현대 국어의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고, 현대 국어의 ‘젓다’는 ‘젓고’, ‘저어’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돕다’, ‘젓다’는 <대화 2>의 ‘굽다’, ‘짓다’와 마찬가지로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임을 알 수 있다. ③ <자료>에서 15세기 국어의 ‘젓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이 ‘젓-’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화 2>에서 ‘ㅅ’이 사라지면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다고 하였으므로,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난 것은 ‘ㅅ’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ㅅ’이 없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④ <자료>에서 15세기 국어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이 ‘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현대국어에서도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돕-’으로 나타나므로 이 둘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⑤ <자료>에서 15세기 국어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이 ‘젓-’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현대 국어에서도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젓-’으로 나타나므로 이 둘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2. 중세, 근대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주어진 탐구 활동과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굽다’는 ‘돕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ㅂ 불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돕-’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돌-’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굽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굽게, 고봐, 고툼’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며 ‘ㅌ’ 앞에서 반모음 ‘ㅍ’ 로, ‘ㅌ’ 앞에서 ‘ㅍ’로 바뀌었으며, ‘ㅌ’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ㅍ’로 바뀌었으므로, 17세기 초엽에는 ‘굽게, 고와, 고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긋다’는 ‘젓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ㅅ 불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젓-’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정-’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긋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긋게, 그셔, 그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ㅅ’은 16세기 중엽에 사라졌으므로, 17세기 초엽에는 ‘긋게, 그어, 그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③ ‘눅다’는 ‘돕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ㅂ 불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돕-’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돌-’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눅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눅게, 누봐, 누툼’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며 ‘ㅌ’ 앞에서 반모음 ‘ㅍ’ 로, ‘ㅌ’ 앞에서 ‘ㅍ’로 바뀌었으며, ‘ㅌ’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ㅍ’로 바뀌었으므로, 17세기 초엽에는 ‘눅게, 누워, 누운’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④ ‘빋다’는 ‘좁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좁-’은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모두 어간이 ‘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빋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빋게, 비서, 비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6세기 중엽에 음절끝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ㅅ’이 나타났으므로, 17세기 초엽에도 ‘빋게, 비서, 비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⑤ ‘잡다’는 ‘좁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좁-’은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모두 어간이 ‘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잡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잡게, 자바, 자븐’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7세기 초엽 역시 ‘잡게, 자바, 자븐’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709

15. 단어 형성의 원리, 새말 창조의 원리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합성어를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한 뒤,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문항을 정확하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개념 이해와 함께, 밑줄 친 단어의 결합 방식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언과 용언은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말의 일반적 문장 구조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다. 그러나 ‘뛰노는’은 ‘뛰-+놀+-는’으로 분석되고, 우리말의 일반적 문장 구조와 다르게 연결 어미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뛰노는’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몰라볼’은 ‘모르-+-아+보-+-ㄹ’로 분석되는데, 용언 ‘모르-’와 용언 ‘보-’가 연결 어미 ‘-아’로 이어져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③ ‘타고난’은 ‘타-+-고+나-+-ㄴ’으로 분석되는데, 용언 ‘타-’와 용언 ‘나-’가 연결 어미 ‘-고’로 이어져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④ ‘지나달’은 ‘지나-+-ㄴ+달’로 분석되는데, 용언 ‘지나-’가 체언 ‘달’을 수식하면서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쓰였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⑤ ‘굳은살’은 ‘굳-+-은+살’로 분석되는데, 용언 ‘굳-’이 체언 ‘살’을 수식하면서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하여 쓰였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17수능

13.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우선 중세국어의 ‘큰 막수물(막숨+울) 여러(열-+-어)’와 ‘번개 구름(구름+을) 흐터(흘-+-어)’, 현대 국어의 ‘큰 마음을 열어’와 ‘번개가 구름을 흠어’에서 ‘열다’와 ‘흠다’의 목적어가 모두 드러나 있으므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두 동사는 모두 타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세 국어의 ‘自然히 막수미(막숨+이) 여러(열-+-어)’와 ‘散心은 흐튼(흘-+-은) 막수미라(막숨+-이라)’에서 ‘열다’와 ‘흠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자동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국어의 경우 ‘열다’와 ‘흠다’는 ㉠과 ㉡의 첫째 문장에서처럼 목적어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열-+-리-+-어)’와 ‘산심은 흠어진(흘-+-어지-+-ㄴ) 마음이다.’에서처럼 목적어가 없을 경우에는 피동 표현이 결합돼 쓰이는 모습을 통해 자동사로 쓰이지 않고 타동사로만 쓰임을 알 수 있다.

1806

15. 중세 국어 문법의 이해

정답해설 : 중세 국어에 나타나는 서술격 조사의 실현 양상을 탐구하는 문항이다. <보기 1>의 설명에 따를 때,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었다. 즉 (1)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는 ‘이’, (2)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영형태(Ø)’, (3)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로 실현되었다. <보기 2>의 ㉠에서는 체언 ‘니’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는 경우이므로 (2)에 해당해 형태가 실현되지 않는 ‘니+-라’로 쓰이고, ㉡에서는 체언 ‘바’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는 경우이므로 (3)에 해당해 ‘ㅣ’로 실현되는 ‘바+ㅣ+-라’로 쓰인다. 그리고 ㉢에서는 체언 ‘다락’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는 경우이므로 (1)에 해당해 ‘이’로 실현되는 ‘다락+이+-라’로 쓰인다. ㉣에는 ‘니라’, ㉤에는 ‘바’의 ‘ㅌ’와 ‘ㅣ’가 결합한 형태인 ‘배라’, ㉥에는 체언의 끝소리가 서술격 조사 ‘이’의 첫소리로 연음된 형태인 ‘다라기라’가 들어가야 적절하다.